

Governance Opinion

< 돌아온 탕아, 일양약품과 일양바이오팜 >

1

946년 창업한 일양약품은 그 유구한 역사만큼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 왔다. 원비D, 영비천 등 드링크 제품으로 잘 알려진 일양약품은 미래 성장의 핵심인 연구 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글로벌 신약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월 결산법인인 일양약품은 2014년 12월말인 3분기 기준 개별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총 자산은 3,953억원이며, 매출은 약 1,110억원 규모로 시가 총액은 5천 7백억원에 달한다. 오랜 업력과 외형, 인지도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은 중견 제약기업이다.

일양약품은 정형식 창업주를 시작으로 그의 아들인 정도연 회장이 대를 이어 현재 일양약품의 최대주주이며, 정도연 회장의 아들 정유석 상무가 일양약품 경영에 가세하며 3대 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정도연 회장의 지분율은 약 22.72%이며 장남 정유석 상무는 약 4.04%, 그리고 차남인 정희석 씨는 0.0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돌아온 탕아, 일양바이오팜

'돌아온 탕아'는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로, 유산을 미리 받은 후 돈을 모두 탕진한 아들이 후회하다가 비난과 호통을 감수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되며,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환대하며 감싸준다는 내용이다. 일양약품과 일양바이오팜은 '돌아온 탕아'의 아버지와 아들을 닮아있다.

일양바이오팜은 2009년 일양약품이 5천만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지분 100% 자회사였다. 일양약품의 이사회 결의에 따르면 일양약품 이사회는 2009년 10월 5일 일양바이오팜 설립을 가결하였지만 등기 부등본상 설립일은 2009년 9월 28일이다.

일양약품은 일양바이오팜 설립을 가결한 다음날인 2009년 10월 6일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일양바이오팜에 대해 자금 대여를 승인하게 된다. 2009년 12월 말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일양바이오팜과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대여금으로 84.5억원을 지급하였다.

일양바이오팜은 일양약품으로부터 차입한 84.5억원과 금융권 차입금 30억원 등을 조달하여 일양약품 이사회가 일양바이오팜에 대한 자금 대여를 가결한 그 다음날인 2009년 10월 7일 한국아벡스제약과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양바이오팜과 한국아벡스제약이 체결한 사업 양수도 계약은 포괄적인 양수 양도가 아니라 한국아벡스제약의 품목과 생산설비만 양수했다고 한다. 일양바이오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일양바이오팜이 한국아벡스제약에 지불한 양수 금액은 110억원이다. 하지만 실제로 일양바이오팜이 양수도 계약을 통해 취득한 순자산공정가액은 약 47억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63억원은 영업권으로 계상되었다. 일양약품 측은 최신 GMP 생산시설을 갖춘 한국아벡스제약을 일양바이오팜이 인수하여 자체 영업 및 일양약품의 신제품 생산공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양수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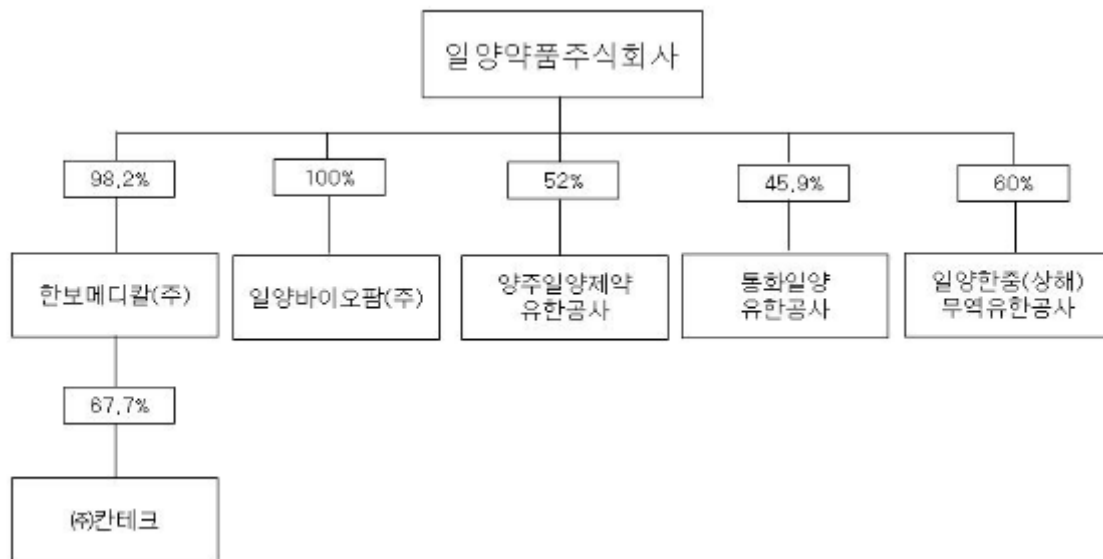
물론 실제 손에 잡히는 자산이 전부가 아닐 수 있으며, 수치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무형의 자산들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지불한 금액과 양수한 순자산을 비교해서는 안될 것이다. 하지만 일양바이오팜의 한국아벡스제약 사업 양수도는 분명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양바이오팜이 한국아벡스제약으로부터 양수한 품목 가운데 칼페롤정, 우리플루코나졸 등 17개 품목에 대해 약가고시가 2010년 2월 폐지되었고 재고소진 및 반품 등을 고려한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0년 8월 1일자로 급여가 삭제되어 코드가 사라졌다고 한다. 이로 인해 일양바이오팜 역시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다고 해당 언론은 전했다. 일양바이오팜이 한국아벡스제약으로부터 사업을 양수도 하기 이전인 2009년 중반에도 한국아벡스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의약품 재평가 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로 우리란소프라졸캡슐 외 3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국아벡스제약으로부터 사업을 양수도 하는 과정에서 실제 양수한 순자산의 훨씬 더 많은 영업권을 주고 양수할 만큼 한국아벡스제약의 품목과 생산시설이 가치 있는 것이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 2010년 일양바이오팜은 35억원 매출에 약 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으며, 한국아벡스제약으로부터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 잔존가액을 전액 감액하면서 무형자산감액 손실 약 47억원 등이 영업외손실로 반영되어 약 56억원의 큰 폭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후 일양바이오팜의 매출은 조금씩 증가해 2013년에는 약 73억원까지 매출을 끌어 올릴 수 있었으나 순이익은 2013년에 5억원이 전부였으며 그 전까지는 매년 적자를 기록했고, 그 결과 2013년말 기준 일양바이오팜의 누적결손금은 112억원에 달했다. 2013년 총 자산이 79억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실로 막대한 손실이 누적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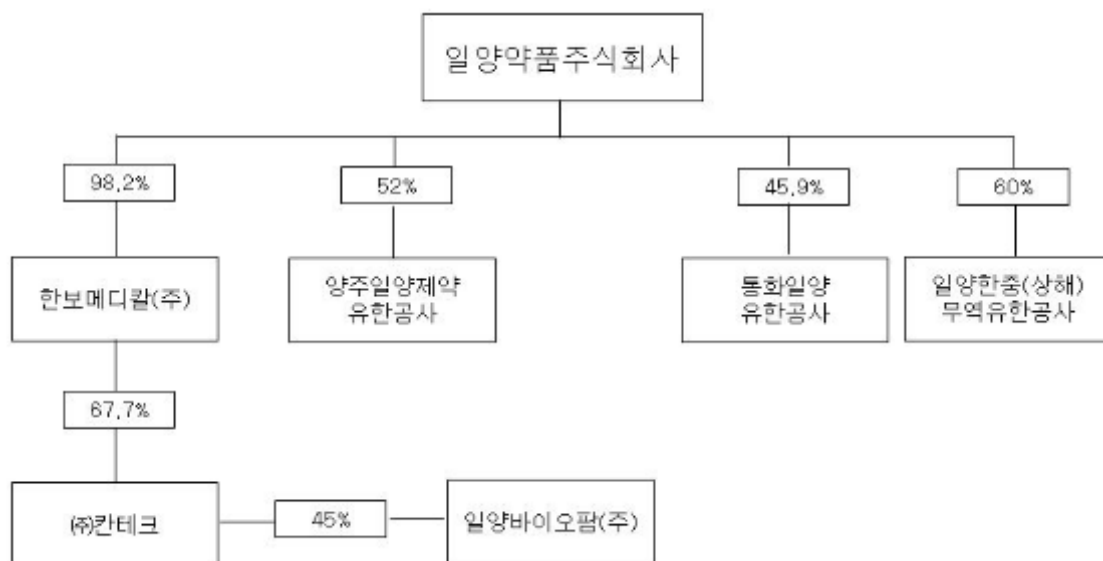
그런데 일양약품의 일양바이오팜 투자에는 이 외에도 다소 석연치 않은 부분이 더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양약품은 2009년 10월 일양바이오팜을 설립한 이후 80억원 이상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일양바이오팜에 공을 들여 왔다. 그리고 2010년 9월말 기준인 반기보고서에서도 일양바이오팜을 일양약품의 100% 자회사로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그 다음 분기인 2010년 12월 말 기준인 3분기 보고서에는 일양바이오팜이 일양약품의 100% 자회사가 아니라 일양약품의 계열사인 칸테크가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010년 9월말 기준 계열회사 계통도]



[2010년 12월 기준 계열회사 계통도]



일양바이오팜에 대한 지분 투자액은 겨우 5천만원에 불과하지만 대여금 등을 포함했을 때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이 투입된 일양바이오팜에 대한 일양약품의 지배력이 변동된 것이다. 이는 분명 작은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양약품은 일양바이오팜의 지분 매각 사유 및 매각 조건, 매각 상대방 등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일양약품의 이사회 활동 내역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말 그대로 소리 소문 없이 일양바이오팜의 지분이 매각된 것이다.

일양바이오팜의 매각 사유와 매각 조건 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일양바이오팜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매각 상대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일양바이오팜의 지분 45%는 일양약품의 계열회사인 칸테크가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55%는 정희석 외 3인이 보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희석은 앞서 살펴본 정도연 일양약품 회장의 차남이다. 즉, 일양바이오팜이 일양약품의 100% 자회사에서 오너 일가가 55%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변경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지분 변동에서 뿐만 아니라 등기임원 구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일양바이오팜의 등기이사는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2명이 정도연 회장의 장남과 차남인 정유석, 정희석 씨이며, 그 중 정희석 씨가 일양바이오팜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이처럼 일양바이오팜이 일양약품에서 오너 일가로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양약품의 일양바이오팜에 대한 지원에는 변함이 없었다. 오히려 지원 규모는 더 커졌다.

2014년 6월말 기준 일양약품의 일양바이오팜에 대한 채권 규모는 약 144억원에 달한다. 최초 일양바이오팜 설립시 대여한 84.5억원에 거의 2배 가량 증가한 셈이다. 일양약품의 일양바이오팜에 대한 지원이 이처럼 점차 커진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양바이오팜의 실적이 개선되지 못하고 손실이 누적된 것과 같이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일양바이오팜의 실적 추이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매출	7,331,739	6,108,021	5,285,388	3,543,826
영업이익	1,254,847	-3,883,920	687,987	-609,578
당기순이익	507,505	-4,692,628	-108,503	-5,628,524

지속적인 손실 누적으로 일양바이오팜은 2013년 말 기준으로 총 자산 79억원에 부채는 191억원에 달하며 누적 결손금은 112억원에 육박하게 된다.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사실상 한계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다.

그런데 2014년 9월 돌연 일양약품은 일양바이오팜을 다시 100% 자회사로 만드는 결정을 하였다. 일

양약품은 일양바이오팜에 기 대여한 채권을 출자전환 함으로써 일양바이오팜을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방법을 선택했다.

물론 이를 통해 일양바이오팜의 채무 대부분이 주식으로 전환되어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 일양약품은 일양바이오팜을 최초 100% 자회사로 설립하여 대규모 자금을 대여하면서 사실상 일양바이오팜의 사업 부담을 일양약품이 전부 부담한 상황에서 지분 55%를 오너 일가에 조용히 매각하였다. 이후 일양바이오팜은 사업을 지속하였다. 그 과정에서 모든 리스크는 일양약품의 몫이었고, 이익과 기회는 절반 이상의 오너 일가의 몫이었다. 만약 일양바이오팜의 사업이 큰 성공을 거두어 일양바이오팜의 기업 가치가 상승하였다면 지분 구조상 그 중 55%는 정희석 씨 등 오너 일가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사업이 여의치 않게 되면 막대한 대여금을 투입한 일양약품이 그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상황이다. 전적으로 일양약품에 불리하고 오너 일가에 유리한 게임인 셈이다.

일양약품은 일양바이오팜을 자회사로 만듦으로써 다시 상황을 원위치 시켰지만 일양약품이 일양바이오팜의 사업 기회를 오너 일가에게 슬그머니 넘겨준 기간 동안 분명 유무형의 손실과 위험을 부담하였으며, 이는 다시 일양약품 주주 전체의 피해와 위험으로 이전되었다.

오랜 업력의 일양약품은 현재 2세 경영에서 3세 경영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선친의 뜻을 올바르게 이어 받아 사회적으로 존경 받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이른바 명문 장수 기업이 많아진다면 이는 분명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어쩌면 일양바이오팜의 사업이 성공적이었다면, 일양바이오팜이 일양약품 3세 경영의 지렛대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가업 승계를 위한 재원 마련 전략 역시 상속에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일 수 있다. 하지만 주주 전체의 기회를 빼앗고 위험을 전가시키는 잘못된 방식의 가업 승계 전략이 설사 성공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렇게 편법으로 가업을 승계 받은 후계 경영자가 오랜 시간 쌓아온 그 회사와 사업의 이념과 정신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는 비단 일양약품 뿐만 아니라 가업 승계를 고민하는 모든 경영자들이 스스로에게 되물어봐야 할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다.